입문수기

첫회 난 남들이 가지 않은 진리와 만나는 멋있는 삶을 꿈꾸었다

동기생들 중 누구누구가 벌써 몇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는다.
내 나이에 그런 슬픈 소식을 들으니 영생의 길을 가는 나는 더욱 이 길의 소중함을 느낀다.

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라는 마음 속 슬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다

나의 부모는 동갑내기로 할아버지끼리 사돈이 될 것을 결정하여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는 거상이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백화점을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외삼촌이 한 분 계신 아주 애지중지 키워진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내려갔고 그때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도록 훈육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최연소 행정고시를 패스하셔서 재무부를 거쳐 금융계에서 일하셨다. 아버지는 자유당 시절부터 정계의 쟁쟁한 분들과 교분을 갖고 계셔서 우리 집은 거의 매일 아버지의 손님으로 술상이 차려졌다. 어머니는 고생 없이 애지중지 자란 분이었으나 결혼 후 자식들 키우랴 아버지 술 손님 대접하랴 가정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등 눈코뜰 새 없는 생활 속에 아버지의 여자문제로 마음고생도 심한 생활을 하셨다. 이런 가정환경으로 난 어려서부터 결혼생활은 결코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게 됐다.

나의 어린 시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가기 싫다고 울어대며 자가용에 타는 내 모습이다. 여러 형제자매 중에 내가 선택되어 외할머니 댁에서 살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위, 아래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으나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세상말로 첩을 얻었기에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든 보이지 않는 운을 만든 아이라는 세상 말이 그 배후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외삼촌이 군입대하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혼자 생활하고 계신 외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린 나이지만 왜 나만 부모를 떠나 생활해야 하는 지 서글픔이 가득했다.

그 당시는 시험을 보고 중학교에 들어가던 시절이라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부모 형제가 생활하는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었다. 6학년 쯤 되었을 때, 배 다른 형제라는 3명이 우리 가족이 되었다. 6.25 당시 아버지는 고급공무원이셨는데 행정부가 남쪽으로 옮겨져 지방으로 가게 되셨다. 외할머니는 애지중지하는 당신 딸을 당신 품에서 떠나보내기 싫어 붙들고 계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근무지에서 여자가 생겨 배 다른 동생들이 생겼는데 작은 엄마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가니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우리 형제자매는 아들 2명에 딸 7명으로 배다른 형제가 있어 겉으로는 정말 티없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나 엄마를 잃은 3명의 아이들에겐 아버지의 편애가 심했던 것 같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 받던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실망감이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변하였다

지방에서 외할머니의 사랑 속에 무계획의 자유로운 생활로부터 형제들의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 나도 함께 닮아가다 보니, 두 언니들이 다녔던 진명 중고등학교에 합격하여 전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우등 모범생이 되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 딸은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다고 느끼셨는지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대학 목표를 정하셨다. 아버지가 기대하신 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못해 고통스런 수험생활 속에 내 성격은 어두운 그늘이 졌다. 형제가 많아 부모의 애틋한 정이 모자란 속에 아버지는 내가 학교 성적이 잘 나올 때는 술자리에 나를 불러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곤 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성적이 잘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나 기대에 못 미쳐 대학에 떨어졌다. 재수까지 하며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학에 가려고 열심을 내었으나 내 실력이 아주 못 미치는 것에 나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 할 수 없이 2차 시험을 보고 남자들만이 모이는 한양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였다. 여자는 나를 포함 2명뿐이었다. 다른 여학생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장 딸이었으며 졸업 후에는 서울대 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벌써 내 나이에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있어 영생의 길을 가는 나는 더욱 이 길의 소중함을 느낀다.

대학 2 년간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자책의 시간이었다. 수험기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는 젊음의 시간이었음에도 남들은 미팅이다 클럽활동이다 재미있어 했지만 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3학년이 되니 난 그저 배운 대로 공부하고 시험보고 하는데 남학생들은 나와 달리 선배들에게 매년 출제되었던 각 과목의 시험문제들을 받아 정리하여 공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남학생들과 어울리며 2년간은 지냈던 것 같다.

아버지 병환으로 10여 년간 집안의 가장노릇을 했다

4학년 7월달이 되니 과사무실에서 취업 시험을 보라고 연락이 왔다. 공과대학이라 여자들은 취업의 문이 한정되어 있었다. 공장의 실험실이나 연구기관 그렇지 않으면 교수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의류시험검사소에서 취업시험 연락이 왔던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바로 8월부터 실험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섬유와 의류수출로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이다. 수출제품의 향상을 위해 나라에서는 검사제도를 만들어 검사에 합격해야 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방으로 검사를 나가면 플래카드를 걸고 검사원을 환영하는 시절이었다. 게다가 보수도 일류 대기업보다 많았다.

이렇게 몇 년 지났을 때 아버지의 병환으로 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고 아버지 병원비와 아직 동생들이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였으므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다.

위에 언니 둘은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었으나 내가 시집갈 때 부모님에게 다 받을 것이니까 나보고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진리를 탐구하며 살리란 꿈에 일본유학을 결정했다

이렇게 회사생활 10년이 지났을 때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 제도를 바꾸면서 여러 검사소를 통합하고 인원을 줄여갔다. 나라의 명령에 의해 인원을 줄여야 할 때 가정을 갖지 않은 여자 직원이 대상 1순위라고 한다. 그 당시 난 회사가 연구소의 역할도 하고 있어 계속 공부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라 대학원도 졸업했고 우리 집도 여러 어려운 조건을 해결하면서 빌딩을 지어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였으므로 내가 퇴직서를 제출하였다. 퇴직서를 제출하면서 난 결혼하지 않고 멋있는 나만의 진리세계를 찾으리라 꿈꾸며 일본 유학준비를 했다.

내가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은 같은 회사 내 사람이었다. 입사 동기였고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순박한 마음씨에 끌렸다. 먼저 언니들이 보고 전혀 아니라고 반대하였다. 그리고 중매쟁이가 연결하는 선을 몇 번 보았으나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것이라 서로 마음에 들 리 없었다. 내 마음에 결혼에 대한 꿈이 있었다면 열정적으로 변했거나 부모님들과 다투어서라도 관철시켰을 것이나 내 마음속은 그렇치 않았다.

일본으로 유학 갈 것을 결정한 것은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친척들이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문이나 능력으로는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으니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는 작은 자금으로도 와이셔츠 가게나 작은 공장을 운영하여도 진리에 대해 탐구하면서 내 꿈을 이루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 일본에 가 디자인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어학코스 1년분을 지불하고 일본 땅에 도착하니 한국과 일본의 물가 차가 엄청나서 자동판매기의 음료수도 손이 가지 않았다. ECC 어학원이었는데 한국의 의사 변호사의 아들 딸들도 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일본 생활 2달째가 되자 친척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니 관광의 명소인 우에노에 있는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5층 건물의 대형 음식점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아르바이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음식점 책임자에게 눈치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음식점, 집으로 뺑뺑이를 도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친척집이 동경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왕복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동경 생활 2년이 되자 신주꾸의 구옥이 몰려 있는 곳은 방값이 싸서 그곳으로 집을 옮겼다. 그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도 마치 지구에서 나 홀로 다른 별로 이사 온 듯이 가슴이 뻥 뚫린 듯 마음이 안정이 안되어 길거리를 계속 걸었던 기억이 난다.

밤이 되면 지금도 밤거리를 무서워하여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유흥의 도시인 신주꾸는 술먹은 사람도 많고 스스럼없이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는 곳인데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은 시간에도 용감하게 오고 갔던 것 같다.

정초나 추석이 되면 학교도 쉬고 음식점도 안 열고 해서 친척의 책장에 꽂힌 〈생명의 실상〉이란 책을 읽고 알게 된 '생장의 집'이란 종교단체의 연수원이 후지산 아래에 있어 그 연수원에 가곤 했다. 대개 2박 3일 정도의 기간을 지내게 되었는데 매일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 연수원에 모인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에 따라 말씀도 듣고 관람도 하고 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재량껏 관중을 웃겨 많이 웃긴 사람에게 상을 주었는데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기적들이 일어났다. 또한 그 연수원 내에서 사람과 만나면 소리 높혀 '감사합니다'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 특이한 광경이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쓰리꾼들이 그 나쁜 짓을 고치기 위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쓰리를 하려면 손이 부드러워야 섬세한 감각으로 작업이 가능한 것인데. 설거지로 손이 거칠어지면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생장의 집'은 1950년대 일본을 휩쓴 결핵의 병을 다니쿠치 선생님이 쓴 책을 읽고 병들이 완쾌되어 유명해진 종교단체이다. 그곳은 매일 단 한 사람이 와도 강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시간이 나면 그곳에서 강의를 들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이들 문제로 모인 사람들, 질병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자신이 고통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도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서로 공감대가 생겨 더욱 효과를 초래하는 것 같았다.

어학연수 1년과 패션디자인 3년을 일본에서 공부한 후 1990년 10월에 한국에 되돌아 왔다. 일본 정부에서 공부가 끝나면 일본을 여행하며 살펴보라고 6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 주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취업하여 실무를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곳 저곳 알아 보는데 6개월이 흘러버렸다. 취직은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 외국에서 고생했다고 아무 생각 말고 쉬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몇 달간 쉬는 동안에 조계사에 들러 안국동에 골동품 가게가 늘어선 곳에 들어섰다. 골동품을 보던 중에 이층으로 올라가는 벽에 손글씨로 쓴 벽보를 보고 난 2층의 문을 노크했다. '인류가 하나되는 운동회'였다.*

윤금옥 승사 /본부제단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救世主)에 대한 또 다른 호칭(呼稱)

그 어디에도 '예수'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구세주, 이 얼마나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에 대한 명칭인가?

창세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길 원했지만 아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경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실 절대자 구세주, 정감록 중의 백미(白眉)에 해당되는 격암유록은 "이십세 후 금시당 동방출현 결원해(二十世後 今時當 東邦出現 結怨解)"라고 예언하고 있다. 즉 '20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출현하여 인간들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인데 인간들에게 '공통된 문제이자 바램'이 있다면 당연히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일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풀어줄 즉 〈結怨解〉하여 주실 능력자는 당연히 〈구세주〉일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구세주이다. 그 주인공에 대한 호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칭이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동방의인(이사야41:1~9):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는 존재라면 '왕중왕'을 일컬음이니 '구세주'에 대한 호칭이다.

• 이기는 자(계시록2:26~28):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존재 역시 '왕중왕'을 일컬음이니 이 또한 '구세주'에 대한 호칭이다.

• 이 세상 임금(요한복음14:30): 이후에는 내(예수)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예수)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 역시 '왕중왕'을 일컬음이니 '구세주'에 대한 호칭이 틀림없으며 지금 구세주로 불림 받고 있는 존재인 '예수'가 직접 말한 것이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는 꼭 참고해야 될 대목이다.

• 온전한 것(고린도전서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but when what is perfect comes, then what is partial will disappear.) 성경에서 '온전한 것'이라면 구세주일 수 밖에 없으며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서 예수 이후의 존재이며 저작 연대는 A.D 55~57년 사이로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쓴 것이라 하니 그때까지 오지 않았던 '온전한 것'이 지금 '구세주'로 불림받고 있는 존재인 '예수'를 의미함이 아님은 분명하다.

• 진리(요한복음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될 대상인 '너희'는 특정인 몇몇이 아니라 전 인류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를 자유한 상태로 해 주는 존재가 바로 '진리'라고 하니 이 또한 '구세주'의 호칭임이 분명하며 모든 사람을 공통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죽음'일 것이다.

흰돌의 주인공이 계시는 소사에는 무릉도원 공원이 있다. 소사에서 천국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계시록7:14):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은 그 자체로서 구세주를 일컫고 있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양'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데 '양'이 '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근거는 동양철학 주역밖에 없으며 그것에 의하면 구세주는 양띠 해에 태어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마지막 아담(고린도전서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에서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는 영 또한 '구세주'에 대한 호칭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른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첫 사람)이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음은 그렇게 되도록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과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정이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의 (2장1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에서 '이기는 자'는 구세주의 이칭(異稱)으로서 구세주는 흰 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므로 흰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한편으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015년이 되도록 그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은 주인공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된 존재인 '동방의 의인'께서 그 흰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공개하셨으니 누구든지 들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공개된 흰 돌 위에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바로 〈소사(素砂)〉였다고 단언하셨으니 "동방의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나라 전래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소사 素砂 : 石 + 少)날 구멍이 있다"가 있음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언서 격암유록에도 같은 내용인 "천붕지탁소사립(天崩地坼素砂立)"이 예언되어 있음을 보아 그 성경상의 주인공인 구세주에 대한 이칭이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감록에 예언된 주인공인 〈정도령(正道令)〉 역시 이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경에 예언된 주인공인 〈미륵부처, 전륜성왕〉 역시 구세주에 대한 이칭임에 반대할 수 없으니 만법귀일(萬法歸一)이라는 용어가 이에 딱 어울린다고 하겠다.

구세주의 이칭으로서 "동방 의인, 이기는 자, 이 세상 임금, 온전한 것, 진리,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마지막 아담, 정도령, 미륵부처, 전륜성왕"을 들었지만 이 외에도 성경이나 불경, 정감록, 이슬람교의 경전, 국내 토속종교(천도교, 증산도, 원불교,….) 등의 각 종교 경전에서 지칭하는 주인공에 대한 모든 이칭이 동일 존재에 대한 것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종천 승사 / 본부제단